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2023. 8.

울산문화방송(주)

1

방송사업자 일반 현황

□ 설립목적

- ‘어린이에게는 꿈과 이상을, 젊은이에게는 생활의 의욕을,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이란 설립목적 및 창사 이념으로 1967년 11월 30일 울산민간방송주식회사 설립을 발기하고 동년 12월 11일 창립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성립을 완료한 후 다음 해인 1968년 4월 10일 정규방송(AM)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운영방향

-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및 지역시청자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광고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자회사를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영이익이 공영성을 담보하고 고품질 UHD프로그램 및 뉴스 제작이 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송사를 운영하고자 함

□ 방송현황

- 약 110만 인구의 광역시 울산에 최초로 설립된 방송사인 울산문화방송주식회사는 DTV, UHDTV, 제1FM, 제2FM 등의 종합방송 매체와 정예화 된 75명의 방송 인력으로 울산광역시 전역과 경남, 경북 일부지역에 방송전파를 송출하면서 ‘지역문화의 창달’, ‘건전한 여론 형성’,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와 지역 최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목 표

-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를 시작으로 발전하게 되어 그로 인해 얻게 된 ‘공해도시’, ‘문화 불모지’ 등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환경친화도시’, ‘문화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울산MBC가 앞장섬으로써 울산시민들에게 지역 최고의 방송사로 각인된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확보하여 뉴미디어 방송시대에도 변함없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보장, 시청자의 알권리와 권익신장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함

□ 주요 연혁

- 1967. 11. 10 울산민간방송주식회사 무선국 가허가 취득
(주파수 1,020KHz / 출력 10KW / 호출부호 HLSS)
- 1968. 3. 14 호출부호 HLAU로 변경
- 4. 10 개국 (AM 방송)
- 1969. 3. 6 회사명을 영남방송주식회사로 변경
- 10. 1 울산문화방송(주)로 사명 변경
- 1983. 9. 1 FM방송 개국 및 TV출력 증강 (98.7MHz / 출력 1KW)
- 1985. 9. 1 TV연주소 개설 (UHF CH 33)
- 1986. 4. 10 신사옥 준공 (중구 학성동 現사옥)
- 1989. 3. 30 간이 TV중계소 개소 (미포, 은월, 언양)
- 1994. 5. 21 일본 테레비야마구치(주) 자매결연
- 1999. 11. 1 표준FM방송 개국 (주파수 97.5MHz)
- 2001. 5. 8 인터넷 방송 개시 (VOD, AOD 서비스 개시)
- 2012. 3. 5 HD 대형중계차 도입
- 8. 3 HD 뉴스스튜디오 완공
- 2017. 9. 28 UHDTV방송 개국 (CH 29)
- 2021. 3. 11 제19대 대표이사 사장 전동건 취임
- 2023. 4. 10 창사 55주년 기념일

□ 대표자

성명 (직책)	임명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전동건 (대표이사 사장)	2021.03.11	2021.03.11 ~ 2024.03.	- 1991년 MBC 취재기자 입사 - 2018년 MBC 보도제작국장 - (現)울산MBC 대표이사 사장	-

□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임명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목주승 (편성제작국장)	2020.01.17	2020.01.17 ~	- 1995년 울산MBC PD 입사 - 2010년 울산MBC 제작부장 - 2012년 울산MBC 경영심의부장 - (現)울산MBC 편성제작국장	-

2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구분	텔레비전		라디오					DMB	합계
	UHD	DTV	단파	AM	표준FM	FM	소계		
전체 방송국	1	1	-	-	-	2	2	-	4
재허가 신청 방송국	1	1	-	-	-	2	2	-	4

□ 재허가 신청 방송국 세부 현황

허가 번호	허가일자 (허가 만료일)	방송국 명칭 (방송국 종별)	방송사항 (사업종류)	호출부호	소재지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기타 허가의 주요 내용
					연주소	송신소	일원	일부			
11-2017-07-0002587	2017.09.28 (2023.12.31)	울산MBC UHDTV방송국 (UHDTV)	텔레비전방송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사항전반/광고방송), 보조적데이터방송 (연동형-독립형 데이터방송 서비스)	H LAU -UHDTV	울산 중구 서원 3길 65	울산 북구 연암동 산1-4	울산 광역시	-	563MHz (CH29)	5kW	-
11-2002-07-0002348	2002.11.13 (2023.12.31)	울산MBC DTV방송국 (DTV)	텔레비전방송 (방송사항전반/광고방송), 보조적데이터방송 (연동형-독립형 데이터방송 서비스)	H LAU -DTV	울산 중구 서원 3길 65	울산 북구 연암동 산1-4	울산 광역시	양산시	593MHz (CH34)	2.5kW	-
11-1999-07-0002184	1999.08.17. (2023.12.31)	울산MBC 제1FM방송국 (표준FM)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H LAU -SFM	울산 중구 서원 3길 65	울산 북구 연암동 산1-4	울산 광역시	경주, 양산시	97.5MHz	1kW	-
11-1983-07-0000174	1983.08.29. (2023.12.31.)	울산MBC 제2FM방송국 (음악FM)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H LAU -FM	울산 중구 서원 3길 65	울산 북구 연암동 산1-4	울산 광역시	경주, 양산시	98.7MHz	3kW	-

구분	주요 내용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p>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최대의 이슈였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도 및 실시간 자막송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임 실천 - ‘울트라’와 라디오생방송 ‘확 깨라’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로 지역방송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대표 프로그램 ○ 자체 심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이후 TV, 라디오프로그램의 사전 심의와 데스크킹 기능을 강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재 최소화 ○ 공정보도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사기획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탐사기획 돌직구, 포커스 울산, 퇴근길 특특)을 통해 공정성 구현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전국 최초로 시민기자들이 생활 속 안전,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인권 문제 등을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시청자 참여형 “우리 동네 시민뉴스”를 제작 및 방송하여 큰 호응
	<p>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과 문화예술사업 개발 지속 ○ 자체 심의를 강화하여 심의 위반 사유가 없도록 지속적 노력 ○ 보도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론형성 및 상생화합을 이끌 수 있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제작 ○ 선거관련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 가치로 삼음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관심사와 시청자의 권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지역 프로그램과 뉴미디어 시대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제작하여 방송의 국제화와 국제 친선 증진에 노력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공 ○ 방송의 공익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 ○ ESG 경영(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친환경 프로그램 제작 추진 ○ 투명한 정보공개와 효율적 의사결정으로 건전한 방송경영 지속

구분	주요 내용	
2. 방송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동네 공해지도”라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공해 오염도 수치 제공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울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나는 자랑스런 울산인이다.”, “같이 삽시다.”, “울산에 살아주소, 울산 인구 올려주소” 등의 홍보캠페인 시행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울산서머페스티벌, 에듀콘서트, 울주오디세이 음악회, 서덕출 창작동요제 등을 언택트 또는 온택트 형식으로 개최하여 울산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제공 ○ 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 나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0.30.이후 현재까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임직원 급여 우수리 및 소정의 성금을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 내 불우이웃시설에 지정기탁 해오고 있음 ○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심의 지상파 편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슈, 사건, 사고 등을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적시에 방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진행 ○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캠페인 ○ 지역 역사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진행 ○ UNIST 등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지역 관광자원의 전국 브랜드화 ○ 지역 스포츠 문화의 활성화 노력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공 ○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어린이날 개최되는 ‘울산 어린이날 큰잔치’ 등 지속 개최 ○ 구독형 뉴스레터(예 : studio 409) 지속 제작 ○ 4차 산업 관련 행사 기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 대한민국 공업 역사의 산물 <울산공업축제>, 울산 출신 동요작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전국 단위 동요제인 <서덕출 창작동요제> 지속 개최

구분	주요 내용
<p>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p>	<p>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우리 동네 시민뉴스’와 같은 시청자들이 방송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을 통해 공익성 확보 ○ 지역 문제를 심층 취재하는 탐사 프로그램 다수 제작 ○ ‘울트라’, ‘확개라’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 시의성 강화 ○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 해설방송, 수화방송의 비율 준수 ○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방송제작으로 구현 ○ 지역MBC 공동제작을 통해 프로그램 장르 다양화 시도 ○ 라디오는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보도프로그램(정오, 15시, 네트워크 뉴스), 교양프로그램(퇴근길 특특), 오락프로그램(확 개는 라디오)을 제작 및 방송 ○ <돌직구>는 2020년 ‘이달의 PD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 울산의 현안을 다룬 <지역 대 개조 4부작>은 2022년 방송기자연합회와 언론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 ‘좋은 보도상’ 등 다수 수상 ○ 지역의 이슈에 대한 특종, 단독보도, 심층취재, 기획취재 시리즈 등으로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고, 다수의 취재 아이템은 대외수상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높은 조회 수 기록 ○ 지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아이템들을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인 <울트라>, <확 개는 라디오>, <퇴근길 특특>를 통해 방송 ○ 초고화질 영상의 효과가 극대화된 UHD 다큐멘터리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산성> 등을 제작하여 시청자 호응과 대외수상 ○ 라디오 다큐멘터리 <이 사람이 듣는 세상>, <철의 노래>, <라디오 악극 울산아가씨>를 제작하여 지역 색이 묻어나는 아이템 개발에 최선을 다함 ○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의 ‘이 PD의 파워 인터뷰’ 코너에서는 달천철장의 마지막 광부, 정크아트와 달인과 같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소외계층을 소개 ○ 사건 사고를 담은 <액션캠>은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방관, 119 구조대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군들을 조명 ○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제작 ○ 매거진 프로그램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는 ‘업자들의 맛집’, ‘메뉴의 탄생’, ‘노가더’와 같은 고정 코너들을 개발하여 새로운 아이템과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 ○ 울산의 동시작가 서덕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서덕출 창작동요제>를 선두로 맑고 고운 노랫말의 동요를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어린이프로그램 및 행사 제작

구분	주요 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보다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면 해설방송과 수화방송의 비율을 준수 ○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 강화 ○ 자체심의와 데스크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유지 ○ ‘시민기자’를 통해 시청자들의 방송제작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의견과 이슈들을 포착 ○ 공익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도, 교양, 오락 등의 종합편성 지속 ○ 청취자 참여 확대로 지역 밀착형 음악 프로그램 제작 ○ 지역 소외 계층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침, 저녁뉴스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수어” 방송 실시 ○ 장애인방송 관련 법정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질적으로 보다 나은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다문화가정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잘 담아내도록 노력 ○ 뉴스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의 이슈에 대한 특종, 단독보도, 심층취재, 기획취재 시리즈 등을 확대하여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 ○ 지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적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풀어주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아이터들을 방송 중인 <울트라>, <확 깨는 라디오>, <퇴근길 톡톡> 등을 지속 제작 ○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지역의 문화, 인물, 환경 등에 관한 방송 소재들을 끊임없이 발굴 ○ 사건 사고를 담은 <액션캠>은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방관, 119 구조대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군들을 조명 ○ 다문화 가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의 인권신장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공익캠페인과 프로그램 제작 ○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의 수증계는 100% 편성하고자 노력 ○ 넓게는 중장년층까지 포함하여, 노년층의 놀이문화, 여가문화 등을 담은 노인 관련 프로그램 제작 노력 ○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전달하는 교양프로그램 제작

구분		주요 내용
4.경영·재정·기술 적 능력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 방송환경에 대응하여 뉴미디어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전담 조직 출범 - 2021년부터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TF조직(미래전략추진단, 신사업추진단)을 운영하여 미래전략 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유형자산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추진 ○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연장에 따라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퇴직자 수에 대응한 보수적 채용 실시('20년 3명, '21년 1명, '22년 1명) - 적정인원산정법에 의거, 2023년 5월말 현재 총76명(임원 1명, 정규직 64명, 계약직 11명)의 임직원 수를 유지함으로써 목표를 초과 달성 - 2019.12.31.자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은 '20년 63.6% → '21년 58.9% → '22년 53.2%를 달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건전화 추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환경·사회·투명경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친환경, 사회적 프로그램 제작 - 지상파방송 광고매출 감소에 대비하여 수익원 다변화 추진 - 지역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 구현이 가능한 재무건전성 확보 ○ 조직 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 방송환경에 즉시적 대응 가능한 조직의 범위 확장 또는 가용 인적자원의 재교육을 통해 추가 채용 없이 내부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 뉴미디어 방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투자 - 다직무 수행 가능한 멀티형 인재 육성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정적 유동자금 유지 - 수익원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 중계소 2개소 설치 - 제1FM / 제2FM 자동운행시스템 교체 등

구분	주요 내용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재 콘텐츠를 활용한 고품질 UHD 다큐멘터리 제작 ○ 어린이 합창단 유니스텔라 운영 및 어린이 관련 행사 참여 지속 ○ 방송통신발전기금 성실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계획(2019 ~ 2022) : 658백만 원 - 납부실적(2019 ~ 2022) : 628백만 원(계획 달성률 : 95.4%) ○ 방송심의제재 위반 최소화 달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무위반 달성 ○ 어린이 대상 방송국 견학 및 방송체험 교육 실시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역시청자 미디어 교육 실시 ○ 특집 프로그램 제작 시 지역에 기반을 둔 외주사와 공동제작 ○ 지역 내 방송 관련 외주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콘텐츠 제작역량 확보에도 기여 ○ 방송제작 도급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문화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과 노동의 대가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서 작성 업무시스템 정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금 성실 납부 지속 ○ 지역 콘텐츠 제작자 육성 및 발굴, 상생 방향 모색 ○ 지역 콘텐츠 발굴, 유통 및 확대 노력 ○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도급근로자 처우 개선 등 상생 협력 ○ UHD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제작투자로 고품질 콘텐츠 제공 ○ 기존 외주 제작사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신규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구매, 송출하여 외주제작사와 상생 협력 체계 구축 ○ 프로그램 또는 행사 시작 전 외주제작사, 프리랜서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문화예술인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작성 의무화 지속 ○ 재난, 재해 상황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SNS를 활용해 정규 방송시간 외에도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 지역의 콘텐츠 제작역량 확보를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자와의 협업을 적극 추진 ○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 방송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 도급근로자 처우 개선 지속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계약의 합리적 인건비 책정 등을 위해 매년 정기협의 개최 및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도급근로자의 처우 증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인건비 인상 등에 반영

구분	주요 내용	
6. 재난방송 실시 에 관한 사항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 '20년 27,802분34초, '21년 9,581분36초, '22년 17,422분53초, '23.5월까지 3,453분10초로서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 기록 - 제1FM : '20년 5,084분, '21년 5,778분, '22년 3,746분, '23.5월까지 474분 - 제2FM : '20년 2,680분, '21년 3,006분, '22년 1,670분, '23.5월까지 275분 ○ 적절한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내부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함 ○ 재난방송 교육 실적(총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3회 : '20년 6월 24일(교육), 11월 19일(교육), 11월 24일(교육) - '21년 3회 : '21년 9월 15일(교육), 10월 20일(교육), 11월 18일(교육) - '22년 3회 : '22년 9월 28일(회의), 11월 2일(회의), 12월 14일(회의) ○ 재난방송 모의훈련 실적(총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1건 : '20년 6월 24일 - '21년 1건 : '21년 9월 15일 - '22년 1건 : '22년 9월 15일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2,826건 실시(통보건수 대비 100% 시행 실적 기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22년 “태풍 재난 특보”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 유튜브 생방송 사례와 같은 지상파 편성권한의 한계를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극복한 재난방송 실시 ○ 재난발생 시 혹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과 대처 요령을 방송으로 적극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 ○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방송을 긴급편성하고 재해의연금 모금과 이재민 돕기 특별생방송을 기획 및 편성 ○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홍보방송 ○ <울산MBC 재난방송 매뉴얼>과 <방송통신위원회 재난 통보 수신용 클라이언트>를 활용한 재해정보 신속 제공 ○ 재난발생 시 울산MBC 뉴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수정보 신속 제공 ○ 재난방송교육은 현재와 같은 체계로 운영하되, 재난상황 발생 시 울산광역시재난안전본부,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 유지 ○ 울산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들의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재난안전캠페인 수시 송출 ○ 재난방송은 수중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방법과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